

Session 15 David's Godly Response To Saul's Death (2 Sam. 1) 제 15 장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경건한 반응 (삼하 1 장)

I. INTRODUCTION

도입

- A. 2 Samuel 1 gives us important insight into David's perspective on his enemies as well as into fallen leaders in the kingdom of God. His response can be used as a litmus test for us to measure elements of bitterness that we may have toward our "personal Sauls" or fallen leaders in the body of Christ.

삼하 1 장은 다윗이 자신의 적을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다윗의 반응은 우리가 "각자의 사울들" 혹은 그리스도의 몸 안의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쓴 마음의 정도를 측정할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이 사용될 수 있다.

- B. **The context:** David returned to Ziklag after defeating the Amalekites in the south and received news of the battle between Israel and the Philistines that had just occurred in the north (1 Sam. 31).

정황: 다윗이 남쪽에 있는 아말렉을 물리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북쪽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막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삼상 31 장).

¹Now the Philistines fought against Israel; and the men of Israel...fell slain on Mount Gilboa. ²Then the Philistines...killed Jonathan, Abinadab, and Malchishua, Saul's sons. ³The battle became fierce against Saul. The archers hit him, and he was severely wounded by the archers. ⁴Then Saul said to his armorbearer, "Draw your sword, and thrust me through with it, lest these uncircumcised men come and thrust me through and abuse me." But his armorbearer would not, for he was greatly afraid. Therefore Saul took a sword and fell on it. ⁵And when his armorbearer saw that Saul was dead, he also fell on his sword, and died with him. (1 Sam. 31:1-5)

¹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²블레셋 사람들이 ...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³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⁴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레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⁵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삼상 31:1-5)

- C. How did David respond to Saul's death and the downfall of his government? I encourage all of us to pray "to see what God sees and feel what God's feels" about our adversaries in the body of Christ because they are members of His family. Many secretly wish for the downfall of those who have mistreated them (Prov. 24:17). The Lord has no pleasure in the death of the wicked (Ezek. 33:11).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그의 통치의 몰락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적들에 대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할 것을 권면한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억울하게 한 이들이 몰락하기를 은근히 바란다 (잠 24:17). 주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겔 33:11).

¹⁷Do not rejoice when your enemy falls, and do not let your heart be glad when he stumbles...
(Prov. 24:17)

¹⁷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잠 24:17)

¹¹Say to them: 'As I live,' says the Lord GOD, 'I have no pleasure in the death of the wicked, but that the wicked turn from his way and live. Turn, turn from your evil ways!' (Ezek. 33:11)

¹¹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겔 33:11)

- D. Hearing the news about the death of Saul, David realized that God's promise was about to be fulfilled in his life. However, the joy of this much anticipated day was overshadowed by the grief expressed in 2 Samuel 1:17-29, as he wept over the deaths of Saul and Jonathan.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곧 성취될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그렇게도 고대했던 이 날의 기쁨은 삼하 1:17-29 에 표현되었듯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뒤덮여버렸다.

- E. David grieved over Saul because he saw who Saul was "in the spirit," not who he was "in the flesh" (2 Cor. 5:16). To see someone "according to the spirit" is to see them through the lens of God's eyes and His calling on them and seeing who they are to God and who they are in Christ.

다윗은 사울을 "육신을 따라" 바라 보지 않고 "영 안에서" 바라 보았기 때문에 (고후 5:16) 그에 대해 애도하며 슬퍼했다. 누군가를 "영을 따라" 바라 보는 것은 하나님의 눈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이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한다.

¹⁶Therefore, from now on, we regard no one according to the flesh. Even though we have known Christ according to the flesh, yet now we know Him thus no longer. (2 Cor. 5:16)

¹⁶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고후 5:16)

- F. David viewed Saul through the lens of Saul's divine calling as the Lord's anointed servant who fought the Lord's enemies and in his public role as the top political leader of his nation. David also recalled their friendship in their early days together. The temptation is to view people only through the lens of how they mistreated us personally, thus seeing them mostly as a personal enemy.

다윗은 사울이 주의 대적들과 싸웠던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요 공적인 역할로는 나라의 최고 정치 지도자로서의 하늘의 부르심을 가진 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그를 바라 보았다. 다윗은 초기에 그들이 함께 나누었던 우정을 회상했다. 우리가 갖는 유혹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당하게 대했던 방식으로만 그들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개인적인 적으로서 보게 된다.

- G. Through David’s view and response, we can be used by the Lord to bring healing to hurting hearts in the church as well as to civil strife in city and nations, e.g., the gracious response of Nelson Mandela and Abraham Lincoln to people on the other side of great civil strife. They set the stage for many to enjoy peace and safety instead of facing an escalation of conflict and violence. They approached the healing of their nation through David’s perspective as seen in 2 Samuel 1.

우리가 다윗의 관점과 반응을 배움을 통해, 우리는 도시와 나라들의 사회적 갈등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데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넬슨 만델라와 아브라함 링컨의 분쟁의 상대에 대한 은혜로운 반응이 그러한데,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폭력이 아닌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그들은 삼하 1 장에서 다윗이 가졌던 관점을 가지고 그들의 나라에 치유를 가져왔다.

- H. One reason that David responded in this way was because he did not see Saul as his own “source” of promotion or as preventing God’s will in his life. The death threats of Saul were over. There is a time when the season in the “seminary of Saul” is over.

다윗이 이런 방식으로 반응했던 한 가지 이유는 사울을 자신의 성공의 “원천”으로 여기거나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울의 살해 위협은 끝났다. “사울 신학교”의 시즌도 끝나는 때가 있기 마련이다.

- I. By embracing the call to love our enemies actively, our feelings will change and we glorify God.

우리의 적들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 우리의 감정은 변화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⁴⁴*But I say to you, love your enemies, bless those who curse you,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and pray for those who spitefully use you and persecute you, ⁴⁵that you may be sons of your Father in heaven; for He makes His sun rise on the evil and on the good, and sends rain on the just and on the unjust. (Mt. 5:44-45)*

⁴⁴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⁴⁵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 5:44-45)

- J. In loving this way, we prove that we have received the Father’s love. We are filled with gratitude for love that we did not deserve, so it makes sense to us to share that love with our enemies. This is the most convincing way to prove that the Father’s love exists. It is God’s grace to unbelievers for them to witness God’s love through you in the times they mistreat you.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 우리는 과분한 사랑에 대한 감사로 충만하기에 우리가 이 사랑을 적들에게 나누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³⁵*Love your enemies...you will be sons of the Most High. He is kind to the unthankful and evil. (Lk. 6:35)*

³⁵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눅 6:35)

II. DAVID EXECUTED THE AMALEKITE WHO CLAIMED TO KILL SAUL (1:1-16)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아말렉 사람을 처단하다 (1:1-16)

- A. Saul was killed in the battle with the Philistines on Mount Gilboa at the very time that David fought the Amalekites to recover all that was lost at Ziklag. The events of 2 Samuel 1 happen sequentially after the events of 1 Samuel 30:26 and simultaneously with the events of 1 Samuel 30:27-31 when David divided the spoil that he gained and sent gifts to his friends in Judah (1 Sam. 30:26-31).

다윗이 시글락에서 잃은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아말렉과 싸우고 있던 바로 그때,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다. 삼하 1 장의 사건은 순서상 삼상 30:26 이후에 일어났으며 다윗이 그들이 탈취한 전리품을 나누어 유다에 있는 그의 사람들에게 보냈던 삼상 30:27-31 과 동시에 일어난 일이다 (삼상 30:26-31).

¹Now it came to pass after the death of Saul, when David had returned from the slaughter of the Amalekites, and David had stayed two days in Ziklag, ²on the third day, behold, it happened that a man came from Saul's camp with his clothes torn and dust on his head. So it was, when he came to David, that he fell to the ground and prostrated himself. ³And David said to him, "Where have you come from?" So he said to him, "I have escaped from the camp of Israel." ⁴David said to him, "How did the matter go? Please tell me." And he answered, "The people have fled from the battle, many of the people are fallen and dead, and Saul and Jonathan his son are dead also." (2 Sam. 1:1-4)

¹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처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²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³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⁴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삼하 1:1-4)

- B. The Amalekite boasted that he gave the final deathblow to Saul. Thus, consistent with his revelation and conviction about respecting the royal messianic office, David had the Amalekite killed.

아말렉 사람은 사울에게 최후의 치명타를 가했다고 과시했다. 메시아께서 장차 맡으실 직임에 대한 계시와 확신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그 아말렉 사람을 죽였다.

- C. **The third day:** Due to the man's torn clothes and dust on his head—customary Hebraic signs of grief—David understood that the man came with bad news. These were days of deep contemplation for David who had so many promises of God that had not yet come to pass.

사흘째: 사울의 진영에서 온 사람의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있었기에 히브리인의 슬픔을 드러내는 모습 - 다윗은 그 사람이 좋지 않은 소식을 가지고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시기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약속들이 아직 성취되지 않고 있었던 다윗에게 깊은 생각과 묵상에 잠기는 때였다.

- D. David did not immediately receive the report as true, but probed for more details in order to determine the truthfulness of the information (1:5-10).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즉각 사실로 받아 들이지 않고, 그 정보가 사실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1:5-10).

⁵So David said to the young man who told him, “How do you know that Saul and Jonathan his son are dead?”⁶Then the young man...said, “As I happened by chance to be on Mount Gilboa, there was Saul, leaning on his spear; and indeed the chariots and horsemen followed hard after him...⁸And he said to me, ‘Who are you?’ So I answered him, ‘I am an Amalekite.’⁹He said to me again, ‘Please...kill me, for anguish has come upon me, but my life still remains in me.’¹⁰So I stood over him and killed him, because I was sure that he could not live after he had fallen. And I took the crown that was on his head and the bracelet that was on his arm...” (2 Sam. 1:5-10)

⁵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⁶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⁸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⁹또 내게 이르시되 ...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¹⁰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 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삼하 1:5-10)

- E. **Crown and bracelet:** The man found Saul's body with the crown on his head. This was in itself an expression of Saul's pride to enter battle with the crown on his head, making himself a clear target for the archers (v. 10). Saul's personal tokens of the royal jewelry proved the truth of Saul's death.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 이 청년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던 사울의 시체를 발견했다. 이것은 사울이 왕관으로 인해 자신이 활 쏘는자들에게 명백한 표적이 될 수 있음에도 머리에 왕관을 쓰고 전투에 나갈 만큼 그가 교만했음을 나타낸다 (10 절). 왕을 나타내는 보석류들은 사울의 죽음이 사실임을 증명했다.

- F. **I was sure he could not live:** The Amalekite presented himself as compassionate in killing Saul, since he could not survive. His life lingered, and soon after that the Amalekite gave the final blow.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아말렉 사람은 사울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기에 그를 동정하여 죽였다고 말했다. 사울의 생명이 위태할 때, 이 아말렉 사람이 바로 이어서 결정타를 가한 것이었다.

- G. Some conclude that the Amalekite lied to David about killing Saul. However, the narrative presents David as believing his story. Some see a contradiction between the account of Saul's death in 1 Samuel 31:4-5 and one in 2 Samuel 1:8–10. Most recent commentators accept both accounts as truthful. The Amalekite's story gave the rationale for why the Philistines did not have Saul's crown. The main difference is seen in the account of what happened in the final moments of Saul's life.

It appears Saul inflicted a wound on himself that would have killed him eventually; however, his death was sped up by the Amalekites striking him with a true deathblow.

어떤 이들은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였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었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본문 내용에서 다윗은 그의 말을 믿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들은 삼상 31:4-5 에서 사울의 죽음과 삼하 1:8-10 에서의 죽음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여긴다. 가장 최근의 주석들은 둘 다 신빙성이 있는것으로 받아들인다. 아말렉 사람의 말은 블레셋군들이 사울의 왕관을 가지지 못한 이유에 대한 근거가 된다. 주요한 차이는 사울의 최후의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서 보여진다. 사울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부상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은 결정타를 날려 사울을 죽음이 이르게 했다.

- H. It was important for all to know that David acquired Saul's crown and bracelet, not by participating in the battle against Saul, but by executing the man who killed Saul.

다윗이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얻게 된 것이, 사울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을 죽인 사람을 처형했기 때문에 가지게 되었던 것을 아는 것은 모두에게 중요하다.

- I. David shocked the Amalekite by not being delighted at the news of Saul's death (1:11-12).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에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말렉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1:11-12).

¹¹Therefore David took hold of his own clothes and tore them, and so did all the men who were with him. ¹²And they mourned and wept and fasted until evening for Saul and for Jonathan his son, for the people of the LORD and for the house of Israel, because they had fallen by the sword. (2 Sam. 1:11-12)

¹¹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¹²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삼하 1:11-12)

- J. **All the men:** David changed the views of the men who urged him to kill Saul (1 Sam. 24; 26). Many can lament the “Jonathans” in their life, but few can lament the “Sauls” in their life.

모든 사람: 다윗은 자신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재촉했던 사람들(삼상 24 장, 26 장)의 시각도 바꾸었다. 자신의 삶의 “요나단들”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사울들”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 K. David ordered the execution of the Amalekite who killed Saul (1:13-16).

다윗은 사울을 죽였던 아말렉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1:13-16).

¹³Then David said to the young man who told him, “Where are you from?” And he answered, “I am the son of an alien, an Amalekite.” ¹⁴So David said to him, “How was it you were not afraid to put forth your hand to destroy the LORD's anointed?” ¹⁵Then David called one of the young men and said, “Go near, and execute him!” And he struck him so that he died. ¹⁶So David said to him, “Your blood is on your own head, for your own mouth has testified against you, saying, ‘I have killed the LORD's anointed.’ ” (2 Sam. 1:13-16)

¹³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¹⁴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¹⁵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¹⁶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삼하 1:13-16)

- L. **Amalekite:** David asked him again for his nationality to confirm that he was an Amalekite (1:8, 13). The Scripture called for the death of Amalekites (Ex. 17:15-16; Deut. 25:17-19; 1 Sam. 15:18-19).

아말렉 사람: 다윗은 그가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그에게 국적을 물었다 (1:8, 13). 성경은 아말렉 사람을 멸할 것을 말하고 있다 (출 17:15-16; 신 25:17-19; 삼상 15:18-19).

- M. **Lord's anointed:** Killing the Lord's anointed was parallel to rejecting the God of Israel by killing His anointed leader. David had deep revelation of spiritual authority. Every born-again believer is under the New Covenant and is therefore anointed by God, **but** not all are entrusted with a significant sphere of leadership in God's purpose and to lead God's people.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주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인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절한 것과 동일했다. 다윗은 영적 권위에 대한 깊은 계시가 있었다. 모든 거듭난 신자들은 새 언약 아래 있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바가 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특정 분야의 리더십을 맡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다.

III. DAVID LAMENTS DEVASTATION IN THE HOUSE OF SAUL (1:17-27)

다윗이 사울 집안의 참사에 애통해 하다 (1:17-27)

- A. On hearing the sad news of Saul's death, David first showed his disregard for the Amalekite, who had hoped to gain a reward for killing Saul on the field of battle. Next, David mourned for Saul and Jonathan, which required that David overlook the terrible way in which Saul treated him.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먼저 전장에서 사울을 죽이고 보상을 바랬던 아말렉인을 죽였고, 그 이후에는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애곡했는데 이것은 사울이 그에게 행했던 끔찍한 일들을 극복했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¹⁷Then David lamented with this lamentation over Saul and over Jonathan his son, ¹⁸and he told them to teach the children of Judah the Song of the Bow... (2 Sam. 1:17-18)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¹⁸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 (삼하 1:17-18)

- B. David viewed Saul and Jonathan as the beauty of Israel and as mighty in God (1:19-21).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용사로 여겼다 (1:19-21).

¹⁹“The beauty of Israel is slain on your high places! How the mighty have fallen!” ²⁰Tell it not in Gath...lest the daughters of the Philistines rejoice... ²³“Saul and Jonathan were beloved and pleasant in their lives... (2 Sam. 1:19-23)

¹⁹이스라엘아 네 영광 [한글 KJV: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²⁰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 ²³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 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 (삼하 1:19-23)

- C. *The beauty of Israel:* David saw God's beauty in God's people (Psalms 16:3). He saw them as beloved, pleasant, and wonderful (1:23, 26) and mighty (1:19, 21, 25, 27), swift and strong (1:23).

이스라엘의 영광[아름다움]: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시 16:3). 그는 그들을 사랑스럽고 받는 자, 아름답고 놀라우며 (1:23, 26), 용사요 (1:19, 21, 25, 27), 빠르고 강한 자(1:23)로 여겼다.

³As for the saints who are on the earth, “They are the excellent ones, in whom is all my delight.” (Ps. 16:3)

³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시 16:3)

⁴For the LORD takes pleasure in His people; He will beautify the humble with salvation. (Ps. 149:4)

⁴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시 149:4)

- D. **Tell it not in Gath:** Unbelievers are warned not to rejoice when God's servants fall. How much more important for believers not to rejoice even if it was someone with whom they had conflict!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종들이 실패할 때 즐거워하지 않도록 경고를 받았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심지어 갈등 관계 있는 사람의 실패에 대해 얼마나 더 즐거워하지 말아야 하겠는가!

- E. David recounted the noble characteristics and distinctives of Saul and Jonathan (1:22-24). The fruit of Saul's leadership brought financial prosperity to the nation at different times by their exploits.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고결한 성품과 특별함에 대해 말했다 (1:22-24). 사울의 리더십의 열매는 나라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재정적인 번영을 가져왔다.

²²...*the bow of Jonathan did not turn back, and the sword of Saul did not return empty.* ²³*Saul and Jonathan were beloved and pleasant in their lives, and in their death they were not divided; they were swifter than eagles, they were stronger than lions.* ²⁴*O daughters of Israel, weep over Saul, who clothed you in scarlet, with luxury; who put ornaments of gold on your apparel.* (2 Sam. 1:22-24)

²² ...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²³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²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삼하 1:22-24)

- F. David spoke of his friendship with Jonathan (1:25-26).

다윗은 요나단과 나눴던 우정에 대해서 말했다 (1:25-26).

²⁵*How the mighty have fallen in the midst of the battle! Jonathan was slain in your high places.* ²⁶*I am distressed for you, my brother Jonathan; You have been very pleasant to me; your love to me was wonderful, surpassing the love of women.* (2 Sam. 1:25-26)

²⁵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²⁶ 내 형 요나단이며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삼하 1:25-26)